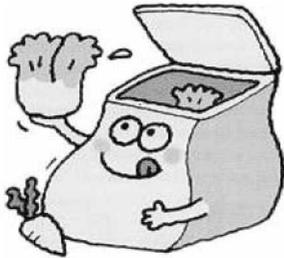


재미나는 표준이야기

김치맛을 잡아라!

김치냉장고 편



■ 맛있는 김치의 비밀, 최적보관온도 "0 ± 0.5℃"

요즈음 참 다양한 냉장고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이는 기업들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한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김치 냉장고가 주목할 만한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 처음 등장한 김치 냉장고는 주부들로부터 폭발적이라고 할 만한 호응을 받아 매년 150%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그 판매액이 부러 1조원(약 140만대)에 이르러 21세기 히트상품으로 꼽혔다.

왜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다른 식품들과 달리 김치는 김장철을 이용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담그기 때문에 내량 보관을 할 공간이 필요하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기 냉장고는 김치만 따로 저장하기에 공간이 협소하고 수시로 문을 열고 닫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새로이 등장한 김치 냉장고는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공기를 차단해 김치 외에도 야채, 과일, 육류 등과 같은 식품을 장기간 신선하게 보관하고, 숙성·발효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또한, 연구결과 밝혀진 김치의 최적 보관 온도 '0±0.5℃' (일반 냉장고의 최적 온도는 '3±0.5℃'임)를 적용하여 김치를 가장 맛있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김치 냉장고가 인기를 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전국을 들쭉이게 한 조사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치 냉장고의 실제 저장용량과 표시된 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20~50%가량 용량이 미달된 것이다.

■ 김치 냉장고 표준화로 맛은 깊게~ 신선도는 길게~

그러나 2003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성능이 향상된 김치 냉장고의 보급을 위해 김치 냉장고 표준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은 일은 거의 사라졌다.

김치 냉장고에 관한 가격(KSC 9321, 김치 냉장고)은 제품의 ▲저장실 평균온도 ▲저장용량 ▲소비전력량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특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1~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반드시 표시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구조, 안전 및 성능을 국제가격과



인치화하여 기술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기 KS 규격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가격을 열람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술표준 2009. 2



보석은 다 똑같은 캐릭터로 재나요?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보석의 측정 표준단위 'carat'은 보석의 값을 매기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표 내리 부부는 올 해로 벌써 결혼 11주년이다. 이번 주말엔 꼭 보석 반지를 준비해 아내와 맞선 11주년 기념일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표 대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 종로 보석 상가를 향해 가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11년 전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 본다.

가녀린 아내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며, "지금만큼 이 걸로 청혼을 하지만, 10년 뒤엔 꼭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줄게."라고 말

하던 자신의 모습, 작년이 바로 그 10년 되던 해였지만 반지 장만을 위해 모아뒀던 돈은 갑작스레 사고를 당해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던 시골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뭐가 중요하며 오히려 자신의 특별상여금까지 시아버지 병원비에 보냈던 아내, 그런 아내가 표 대리는 무척이나 고맙고도 사랑스러웠고, 1년이 지난 지금 유·충계도 그동안 꾸준히 투자했던 펀드 수익률이 크게 올라 부러 없이 아내에게 반지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고마울 뿐이다.

아내와 함께 한 결혼생활 11년을 추억하며 어느덧 종로 3가에 도착했다. 보석 상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웹 검색을 통해 알아보고 문의했던 상점을 찾아갔다.

"다이아 반지 전화로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오실장님 찾아오라고 하시던데..."라며 표대리가 문자, "아, 네, 잘 찾아오셨네요, 제가 오 정민입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그 분이시군요."라며 30대 중반 즈음으로 보이는 세련되고 깔끔한 여자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아준다.

"결혼 10주년 기념 반지 찾으신다고 해서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뽑아 봤습니다. 이쪽으로 들



어오, 세요.” 밝은 조명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각종 금·은 보석들을 둘러보며, 집원의 안내에 따라 고객 상담 테이블 앞에 앉는 표 대리.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산과 받으실 분 스타일에 맞게 제가 뽑아 본 제품들입니다. 마침 기본 사이즈를 찾으셔서, 별도의 맞춤 없이 오늘 당장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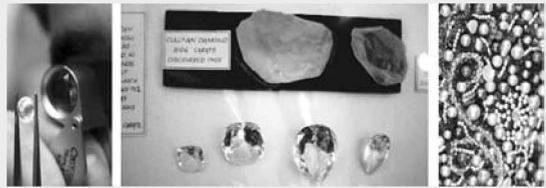
테이블 위에 반지들을 차례차례 꺼내 놓으며 집원이 말했다. “이 쪽 제품들은 1캐럿이지만 원석의 색감과 세공이 좋습니다. 색감이 하얗고 투명할수록 질 좋은 원석이죠. 아주 예리한 컷팅으로 반짝임이 뛰어나요.” 반지를 하나씩 들어 보이며 집원이 설명한다.

“이쪽에 보시는 제품들은 1.5캐럿이라 크기는 더 크지만 색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누린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보통 육안으로 봤을 땐, 색깔 차이가 쉽게 구별되진 않아요.”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도 몰랐던 표 대리는 캐럿이란 단위가 어색하기만 하다.

“어... 그럼 캐럿이 크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다이아몬드는 큰 게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눈앞에 줄 서있는 화려한 반지들을 꼼꼼히 보며 표 대리가 불었다.

“캐럿이 클수록 크기가 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캐럿이란 단위가 꼭 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죠. 캐럿은 무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캐럿은 200mg입니다. 이 용량은 당연히 국제 표준 용량이고요.”라며 집원이 대답하자 표 대리가 알겠다는 듯, “아, 그럼 캐럿은 결국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표준단위인 거로군요.”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이아몬드의 무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석의 무게를 재는 표준 단위입니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도 캐럿으로 측정하구요. 아, 비취는 그렇지 않아요. 비취는 무게가 아닌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진주의 경우는 그레인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라고 집원이 설명해 주자 표 대리는 많은 것을 알았다는 듯, “그렇군요. 보석엔 워낙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몰랐던 정보들이네요. 오늘 이곳에 와서 많은 걸 새로 배웁니다.”



집원에게 크게 미소를 지어 보인 표 대리는 아내의 최고 예쁜 손을 떠올리며 1.5캐럿의 반지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

표준 TIP

보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국제 표준단위 캐럿(ct, car)

‘캐럿(carat)’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국제 표준단위입니다. 첫 번째 용도는 보석 200mg의 질량을 1캐럿으로 하여 보석 매매의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ct’ 혹은 ‘car’로 표시합니다. 1캐럿을 200mg으로 통일한 것은 1907년 제4회 국제도량형총회에서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순수한 금을 24캐럿(24K)으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금의 순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K’로 표시하게 됩니다.

대단위 보석 거래일 경우 미국이나 영연방에서는 야드-파운드법의 질량단위인 ‘온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기술표준 2009. 2